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3년 9월 13일(금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주 과장(509-7281), 김은영 주무관(509-7278)

# 감성 기술 !! 표준으로 재 탄생 하다.

## - 기술표준원, 감성표준화 심포지움 개최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: 성시헌)**은 인간의 감성을 제품 생산에 반영하는 감성 공학 표준화 사업을 시작하면서,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9월 13일 **'감성표준화 심포지움'을 개최**한다고 밝힘

* 감성공학 : 인간의 오감(시각, 청각, 촉각, 후각, 미각)을 비롯한 감성을 과학적으로 측정·평가하여 구체적인 제품설계로 실현해 내고자 하는 기술로써, 감성디자인, 감성마케팅 등에 활용함으로서, 미래 전략산업을 도모할 수 있음

□ 최근 기업들은 감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특정 이미지 등을 활용해 광고를 만드는 등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 하여, 제품 및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 **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**임.

□ 따라서 **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에게 감성표준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현황 등을 소개**하기 위하여 연세대 삼성관에서 상명대학교 황민철 교수와 일본의 감성공학회 Dr. Sizuka 회장 등 국내·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"감성과학 연구 어디까지 왔나?", "일본 감성공학 성공사례 및 표준화" 등의 내용으로 심포지움이 개최됨 < 첨부 1 >



□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 자동차, 의료기기, 사무용품, 가전제품 등에서 손잡이 감촉, 도어의 여닫히는 편한 정도 등 사람의 오감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개발이 시도 중이고, 산업 전반에 감성을 반영하려는 사회적 요구 및 감성공학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, 아직까지 실험적 지표나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아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.

□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선호 성향 및 감성에 잘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표준기반을 마련하고자 **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**에서는 **한국표준과학연구원**과 공동으로 **"감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감성 표준화"** 사업을 추진 중임

□ "감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감성 표준화" 사업은 12월말까지 중장기 전략 및 표준화 로드맵이 완성 될 것이며,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성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측정방법 등 객관적 지표설정을 구축할 예정임

□ 인간의 감성을 표준화된 잣대로 규정 한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사회에 생소한 분야이나 개인별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.

